

“젊은 세상 돌아온다면 춤이라도 추지”

<155>김태매 할머니

등록 : 2010년 04월 13일 (화) 19:25:43
최종수정 : 2010년 04월 13일 (화) 19:25:43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업보 같은 물질 실력으로 전국 팔도 다 돌아...죽을 고비도 여러 번 어머니로부터 배운 소리 실력 ‘제주민요 김태매류’ 인정 아쉬움 많아



▲ 1970년대 물질 작업 모습

노 잠녀의 목소리는 기운을 많이 잃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장단에 맞춰 노래를 뽑아 낼 듯 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행여 주저앉을까 노심초사다.

불과 한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만 노 잠녀와 그녀를 바라보는 ‘지금’에게는 10년은 훌쩍 지난 것 같다. 뒤를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고 세월의 뒤편길로 걸어가는 제주 잠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천근만근 무겁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요망진 '매기상군'



▲ 김태매 할머니

우리 나이로 올해 여든 다섯. 김태매 할머니는 80세까지 잠수였다. 걸음마를 떼고 나서 바다를 배웠던 그 때 여자아이들처럼 일찌감치 소중이를 입었던 김 할머니는 열 세살에 북촌 다려도 넘어 먼 바다까지 물질을 나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열 여섯살부터 '매기상군'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청춘을 바다에 내맡긴 것도 모자라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된 후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덜컹했던 몸이 그 때부터 이상신호를 냈다. "말로는 다 못해... 아픈 거며 힘든 거, 말한다고 누가 알아나 주나" 한숨같은 할머니의 하소연이 귀에 감긴다.

김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열 여섯에 인솔자를 따라 구룡포 물질을 갔고 열 일곱에는 스스로 잠녀를 모집해 바깥물질에 나섰다. 열 여덟에 결혼을 한 뒤 군대에 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바다로 갔다. 통영에 청진, 구룡포, 주문진, 거제도 등 물론 만주 근방까지 다녀왔다.

10여년을 바깥물질을 하면서 생긴 일은 책 10권을 쓰고도 남을 정도다.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고 나오는 일도 허다했고, 청진 험한 바다에서 날 선 호미를 들고 '곤포메역'을 조물어 나올 때면 "매기상군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들었다.

업보처럼 남들보다 물건을 잘 찾는 '재주'를 타고났던 김 할머니는 그만큼 배포도 컸다.

"잠녀들이 그 고생하고, 욕심행 어디 물건을 나눠주나. 어부들이야 괴기 잡으면 하나라도 준다지만 잠녀들은 못준다 했거든. 그래도 빈 망사리가 보이면 얼른 한 두 주먹 넣어주곤 했주.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번 못 들어서"

억척스러운 수밖에 없었던 잠녀들의 삶이 김 할머니의 말에 그대로 묻어난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겼다. 해방되는 해 잠녀 30명을 모집해 정전과 통천 고지에서 물질을 했다. 미역을 조물었는데 도통 팔 수가 없어 직접 지고 평양까지 팔러 나섰다.

남 일 같았던 '분단'상황은 김 할머니의 귀향을 막아섰다. 경비원에게 술을 사주고서야 간신히 평양까지 가 미역을 팔았다. 감시망을 피해 삼팔선을 넘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4·3대는 물질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대신 남편을 잃었다.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고성 군인부대 근처까지 물질을 하러 갔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탕하는 소리에 수건귀가 확하고 날아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타고왔던 배도 없고 같이 작업하던 잠녀들도 없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물을 찼다. 바닥에 발이 닿을 때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다들 깜짝 놀랐어” 김 할머니의 그 때 이야기는 당시 신문에도 실릴 정도였다.



세월의 시름을 담은 노랫소리

김 할머니는 시대를 풍미했던 ‘물질 실력’보다 소리로 더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 제주민요 24곡 등을 담은 ‘김태매의 제주도 민요’ 음반을 발매했을 정도다.

어머니(故 이세인)로부터 배운 소리로 각종 민속경연대회를 휩쓸었고 제주시향토문화유산 무형-1호 제주여성 노동요 4수 김태매류로 지정(2002년)받기도 했다.

타고난 목청은 바깥물질을 통해 다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업의 고단함을 이기고자 한 소절, 잠녀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한 소절 그렇게 소리가 쌓여갔다.

평양에 미역을 팔러갔을 때도 평양기생들 앞에서 멋지게 한 소절 뽑았다. 가지 말라고 붙잡던 그녀들로부터 비단 저고리며 유동치마를 선물 받고 개선장군처럼 제주로 돌아왔던 일도 기억해냈다.

전에는 물질을 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지만 본격적으로 소리를 하고 부터는 공연을 위해 바깥에 나갔다. 제주말 그대로 구수하니 삶을 노래하는 김 할머니의 목소리에 전국이 울고 웃었다.

김 할머니의 작은 방 벽에는 예전의 기억들이 덕지덕지 달려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소리를 내는 할머니의 눈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갈뚝을 입고 매기구덕을 흔드는 손에 “왕이자랑~”자장가 한 곡지가 배겨있다.

그런 기억들을 할머니는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잠녀특별취재팀과의 두 번째 만남은 그런 이유에서 이뤄졌다.

1960년대 후반 처음 받았던 고무뚫이며, 공연을 위해 제주 섬을 1년 넘게 뒤져서 목수를 구해 만든 방매공이, 건입동 걸궁패 30년 관록을 담은 악기며 걸궁복, 김 할머니가 공연을 위해 지어놓고 고이 보관해둔 한복까지 가지 수가 꽤 된다.

“이렇게 다 내놓고 섭섭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먼저 번진다.

김 할머니는 “젊은 세상이 돌아온다면야 춤이라도 추겠지만 돌아올 리가 있겠냐”며 “나 죽고 나면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을 거 이렇게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다”고 마음을 추스린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만 받고 돌아오는 길, 계절을 잃은 찬바람이 귀를 때린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다그침인 것 같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